

교보생명, 건강·사망·노후 3대 보장 강화한 종신보험 출시

**'교보3밸런스보장보험 (무배당)'... 암·뇌·심 3대질환 치료비 최대 10년간 보장
납입면제, 연금확대 등 보장 혜택도 커져**

한국인 5명 중 2명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는 한국인의 3대질환으로 꼽힐 만큼 빈번히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교보생명이 고객 누구나 평생 건강을 지키며 균형 있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대질환 특화보장을 강화한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보험 하나로 사망 보장은 물론 3대질환까지 평생 든든하게 보장하는 '교보3밸런스보장보험 (무배당)'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생애주기에 맞춰 건강과 사망, 노후까지 한 번에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3대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진단 시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3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보험료 납입완료 후 암이나 2대질환(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주요치료 시마다 가입금액의 30%를 최대 10년간 반복 보장한다.

암주요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이며, 2대질환주요치료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 치료를 말한다.

예컨대,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가입 시 암 진단을 받은 후 10년 내에 암주요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은 해당 연도에 연간 3,000만 원씩, 10년간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암주요치료 외에 2대질환으로 주요치료 시에도 매년 3,000만 원씩, 10년간 최대 3억 원을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암, 특정뇌혈관질환,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평생 유지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기간(5·7년납의 경우 10년) 이후에는 3대질환 주요치료비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망보장을 연금으로 전환해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연금전환 이후 3대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10년간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해 장기간 치료비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3대질환 주요치료는 물론 최신 암치료·수술,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수술, 혈전용해치료 등도 특약을 통해 폭넓게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건강·노후보장까지 종신보험의 영역을 확장한 상품"이라며, "사망 보장은 물론 3대질환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혜택을 더해 고객의 건강한 삶과 균형 있는 보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12·15·20·3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 주계약 가입금액 5천만 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케어, 질환 집중케어, 주요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3밸런스보장보험 (무배당)'도 25일 출시한다.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며 3대질환 진단 시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3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 5천만 원 이상 가입 시 유병자를 위한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R)'이 제공된다.